



20일 영광군 흥농읍 영광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 흥농읍 결의대회'에서 주민들이 원전을 상징하는 상어를 메고 원전 진입을 시도하다 정문 철제 펜스를 사이에 두고 경찰과 거칠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영광=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시민 불모’ 파업 vs 파업

‘택시 대중교통’ 법사위 상정팬 내일 버스 울스톱  
택시업계, 법안 통과 안되면 전국 택시 운행 중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최종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자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버스업계가 '버스 무기한 운행중단'을 강행하기로 결심,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택시업계도 법안 통과가 결렬될 경우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어 국민을 불모로 한 업계 간 대립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 및 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결의했다. 이들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면 분회 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간주해 22일 0시부터 버스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업계는 지난 15일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할 이후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한시적 파업', 분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무기한 파업'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예고해왔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열리는 법사위에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연합회측은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영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택시업계는 법안 통과까지도

확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임승운 본부장은 "버스업계가 개정안 자체를 잘못 해석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며 "버스 종사자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버스와의 택시가 균등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각 지자체에 시내·외 버스 운행중단과 관련해 비상수습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한편 광주에는 시내버스 930대, 전남에는 시내 농·어촌버스 1235대와 시외버스 605대가 운행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영광주민 시위대 원전진입 충돌

“불안한 원전 가동 멈춰라” 펜스 뜯고 경찰과 격렬 몸싸움...직원 출근 저지도

각종 비리와 고장이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영광원전 앞에서 영광주민들이 원전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원전 진입을 시도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영광군 흥농읍 주민 500여명은 20일 영광원전 앞에서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 흥농읍 결의대회'를 열고 "영광원전 가동 즉각 중단" "허수아비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며 원전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원전을 상징하는 상어를 메고 정문 우측 철제 펜스 10여m를 무너뜨린 후 원전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 및 원전 청원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경찰에 저지당한 주민들은 정문 좌측에서 펜스 5m가량을 뜯어내고 진입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진입에 실패한 주민들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며 상어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불태우기도 했다. 앞서 주민들은 오전 6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앞세우고 원전 인근 3km 앞 도로에서 원전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좁은 도로를 뚫고 가거나 후문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출근 시간이 1시간 가량 늦어지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1일 영광을 방문, 영

광군의회, 영광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며,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날 오후 영광을 찾아 민간인이 참여하는 영광원전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다. 영광군과 주민들은 민관합동조사

단과 별도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책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범군민대책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서울로 올라가 청와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2013학년도 모집분야  
■ 석사과정(야간) : 광주반, 여수반  
■ 특별전형('12. 12. 5까지 접수)  
■ 일반전형('12. 12. 19까지 접수)  
■ 최고정책과정 ■ 관리사과정  
전화 062-530-5196 FAX 530-2266  
홈페이지 : http://cnugpa.kr

## 文·安 단일화 방식 놓고 격돌

‘공론조사’ 대상·여론조사 문구 대립...오늘밤 10시 맞짱 TV토론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20일 단일화 를 협상을 이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문 후보 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과 안 후보 측 하승창 대외협력실장을 각 팀장으로 한 양측 단일화 실무 협상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를 협상에 착수, 전날 결론을 내지리 못한 '여론조사+a' 를 놓고 또다시 논의에 들어갔으나 오후 8시 현재까지 의견 절충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a' 부분으로 거론된 '공론조사'의 대상을 놓고 안 후보 측은 양측의 지지자(인바운드)를, 문 후보 측은 일반 국민(아웃바운드)를 주장하면서 대립하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문구를 놓고도 안 후보 측은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문구의 삽입을 요구했지

만 문 후보 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날까지 공론조사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단순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론조사사의 한계가 명확하고 단일화 후 양측의 지지자를 하나로 묶는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후보자 간 담판을 통해 단일화 방안 또는 단일후보까지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장외에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우선, 안 후보 측이 제시한 '여론조사+공론조사' 방안 에 대해 문 후보 측은 공론조사를 도입하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식이 필요하다고 반발하는 한편, 안 후보 측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문 후보까지 직접 나서 "안 후보 측이 전달 협상과정에서 '여론조사+공론조사' 병행 방식을 제안했다는데 흔쾌하게 수용했다"면서 "이제는 밀실 협상이 되지 않도록 논의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며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협상 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꼭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며 사실상 거부 의 뜻을 밝혔다. 안 후보 측 박선속 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언론에 공표된 (문 후보의) 통 큰 양보와 희생적 결단의 모습이 실무협상에서 상이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쳐 안타깝다"며 "일방적인 양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한편, 두 후보는 21일 밤 10시 맞짱 TV토론 대결을 통해 단일화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SINCE 1978  
**제일건설(주)**

2012년 매경 살기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수상

www.hc2jeil.co.kr

11월 23일  
오픈

## 효천2지구 제일풍경채 에듀파크

봉선동 교육과 진월지구 인프라 -  
더블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다

봉선동 교육환경은 물론 진월지구생활에 혁신도시 비전까지  
다양한 프리미엄을 같이 누리는 효천2지구 중심 제일풍경채가 옵니다.

봉선동  
명문학교

진월지구  
생활인프라

전용 72㎡~84㎡ 총 700세대

시공 **제일건설(주)** 시행 **창암종합건설**

문의 **1577-1810**

토지입찰 경쟁률 183:1의 인정받은  
프리미엄 택지지구 생활 - 효천2지구 제일풍경채

! 명품 교육환경 | 문성고, 인성고 등 남구 명문학교 및 택지지구내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신설 예정  
! 진월지구 인프라 | 학원, 마트, 쇼퍼센터 등 진월지구의 다양한 편의시설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월빙 청정환경 |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풍성한 녹지환경,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및 골프장 등 청정환경  
! 나주 혁신도시 | 국도1호선, 제2순환도로(효덕IC, 웅산IC) 이용 및 나주혁신도시 빠른 접근성

건보주택 : 광주광역시 서구 봉선동 482-2